

‘한글 서예’ 국가무형유산 된다

조선 왕실·민간 편지·문학 등 문화·민속·국어사 연구 큰 역할 국가유산청, 신규 종목 지정 예고 기록 넘어 ‘문자 예술’로 가치

먹물을 머금은 붓으로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정성껏 써 내려가는 한글서예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예고했다.

한글서예는 먹과 붓을 사용해 한글을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 지식을 포괄한다.

한글로 글을 쓰는 문화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종이는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선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작성한 편지, 문학 작품, 실용서 등은 문화사와 민속사·국어사 분야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서체와 필법이 전해지고 있다.

한글서예는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다양한 서예 작품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 최근에는 몇 글씨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보 ‘훈민정음’

예술(캘리그래피), 미디어 작품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인 한글을 표현하고 특유의 서체와 필법 등 전통성과 고유성을 통해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글서예는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서예’의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청소년 예술가들 ‘꿈의 오케스트라’

남구문화예술회관, 다음달 3일 정기연주회 ‘꿈꾸는 우리’



지난해 남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선보였던 ‘제11회 정기연주회’ 모습. (광주남구문화회관 제공)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온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 50개의 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남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생까지 총 65명 단원들이 소속돼 예비 예술가로서 ‘꿈’을 펼치고 있다.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이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제12회 정기연주회 ‘꿈꾸는 우리’를 오는 12월 3일 오후 7시 남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다.

애니메이션 ‘마녀배달부 키키’ OST인 ‘바다가 보이는 마을’로 시작하는 공연은 안예은 곡 ‘문어의 꿈’, 장기하가 작곡하고 비비카 불러 인기를 모은 ‘밤양갱’으로 이어진다.

이외 콜 앤더 갱의 ‘셀러브레이션’, 폴 매카트니 ‘오블라디 오블라다’, 리처드 로저스 ‘도레미 송’

등 아홉 곡이 관객들을 만난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문체부 주최 ‘꿈의 향연’ 사업을 매개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2회 진행한 바 있다. 8월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간 교류형 사업에 선정, 고창·무안 등 호남권 캠프에서 합동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남구문화회관 서영란 팀장은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가이자 경제학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베네수엘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개발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템아’를 기점으로 내건다”며 “오케스트라 활동이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석 무료(선착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늘을 기다렸네”... 문화교실 수강생 130명 예술잔치

광주서구문화원, 작품 성과 발표회 29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작품 전시·시낭송·연극 등 다채

광주서구문화원이 문화교실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의 작품성과 발표회를 갖는다. 오는 29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펼쳤던 빛고을문화교실 발표회를 ‘서구 문화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바꿔 진행하며 전시,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수강생 작품 발표에는 모두 13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캘리그래피반, 수채화반, 사진반, 아크릴화반 수강생들의 작품 약 40여점이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로비에서 전시된다.

오후 2시부터는 우쿨렐레반, 팬플룻반, 하모니카반, 영어반, 시낭송반, 연극반, 문예창작반 수강생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인절미 떡 만들기, 떡메체험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진행된 빛고을문화교실 발표회 하모니카반 공연 장면. (서구문화원 제공)

더불어 제14회 빛고을문예백일장 ‘서구마을 이야기’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한편 빛고을문화교실은 서구문화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이다. 주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서구문화원은 그동안 시민연극제, 시낭송회, 알로하뮤직페스티벌, 백일장, 이야기공모전, 비엔날레 협력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면서 “향후 이런 프로그램의 일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해 의미 있는 공연과 전시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젠더폭력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이야기

여성폭력 추방주간...광주여성가족재단 오늘 재단 소극장서 강연

UN은 1999년 여성특별총회를 계기로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폭력추방 주간’으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나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변론-젠더폭력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이야기’를 27일 오후 4시 재단 2층 소극장에서 연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주최하며 인권보호 및 젠더폭력 분야에서 활동해 온 하주희 변호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림 대표 변호사인 하 씨는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소송 대리인을 맡아 왔다.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원고들의 공동 대리인이며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명예훼손 고소대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 결정취소 소송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및 국가폭력 해결에 힘써 왔다.

강연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에 대한 고



하주희 변호사

민: 여성폭력추방주간-기록과 다짐’으로 시작해 ‘기지촌 여성들과, 10년의 기록’, 44년만의 진실규명 결정과 증언 대화와 관련된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완전한 정의 실현을 위해’ 등으로 이어진다.

김경례 재단 대표이사는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